

비전2020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

- 약력 : •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선교신학 박사(D. Miss.)
 • (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 소망교회 원로목사

나눔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21세기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기존해 있는 교회들은 수와 질에 있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라파나 미국 교회들도 통계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계교회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도 구라파나 미국 교회들이 지나온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18세기 말 영국은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경제 또한 어려워 강도, 강간, 살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존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게 바뀌어 그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경제, 정치, 문화에 모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살게 되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GNP 1만 달러를 넘어가면 교회 성장은 둔화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식이 높아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못살고 무식하고, 삼팔선이 있는 어려운 지역에 있기에 선교의 여건이 가장 좋은 옥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되면 교회는 불황입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 만해지니까 통계학적으로 성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산이 줄어 재편성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교역자도 줄이고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천 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 요인과 구라파 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분명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교회의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휴무인 직장이 많습니다.

구라파 교회를 분석하면 1주일에 2일 휴무하면서부터 신자 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생각이 비기독교인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중말론적 의식으로 바뀌지요. 18세기 구라파의 신학

이 자유롭다 보니 이렇게 자유화되다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성경이 휴지가 된다는 글도 있어요. 모두 편하니까 성경을 믿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교회를 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신전통주의가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이 만든 작품이 고작 이것인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다시 가지고 나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전통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순수하고 성서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편안해지면 자유주의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선교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복음적 시각이요 선교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계화라고 젊은 사람들이 세계로 빠져나가고 신세대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자의 문제지요. 교역자가 가지는 신앙의 구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이 구원을 받고 이성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내 마음, 성품, 인격 속에 구원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생, 즉 행복한 세계에 산다는 뜻입니다. 지성이,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성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의 신학화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성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와 만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지성이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구원받은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구약성경, 율법, 헬라 철학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당대 최고 높은 지성인이자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성이 변하여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이 되어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신학화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문제를 놓고 그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 하였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기독교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과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만났지만 구약성경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어떻게 철학의 세계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옳은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예수 믿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요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휘청거리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도 없고 그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못박으면 바보가 됩니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창조학회로 활동하는 분들이 약 2백여 명 되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소위 자연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창조론이 맞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과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보고 알쏭달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구원받고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성경의 어디를 봐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너무 좋다는 기쁨과 감사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점점 잘살게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유물사관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즉 기복사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잘살고,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예수를 쉽게 버립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가지고는 21세기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와 잘살고 못사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순수한 복

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구원을 이룹니다.

지금 아이들의 마약과 술 담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데 주체사상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온 세계가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잘살고 안정되었습니다. 구라파 교회가 공산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다가 망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뭐든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산당 50년 피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께 졌습니다. 요새는 새벽마다 목사님 방송 듣는 재미로 삽니다”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워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했더니 “나 천당갈꺼유”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도, 선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를 떠났거든요. 헬라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가 두려워했던 아픈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합니다. 복음적 신앙을 가질 때 담대했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복잡하고 물질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

히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복음에서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구하는 능력도 복음에서 얻을 수 있었고 복음은 만족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복음화 운동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군인은 젊은이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송 한 번 듣고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군복음화 후원회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군종목사님들은 윤리강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두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통계학적으로 주일학교에 나왔던 아이들은 85%가 예수 믿습니다. 언어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나 교회에 갔을 때의 감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면 벽에 박아놓은 못과 같아 빠질 수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언제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귀한 시간에 귀한 사명을 맡은 줄 아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에서 이성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계상으로 20 만이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20 만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40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 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

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생리학적 성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확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이 20 만이 진짜 예수만 믿어주면 확실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해 이 중요한 일들을 성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들어도 중요합니다. 참 복음을 참 전도자가 전하기만 하면 복음 자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는 능력이요 권능이요 지혜입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군복음화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일로 인하여 2020 년 더 큰 역사가 있어 한국을 복음화하고 잠 들어가는 세계의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활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